

국내 용기 포장 안전관리 책임

식약청 '용기포장안전연구회' 발족



이 영 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팀 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팀은 국내 식품용 용기포장 안전성에 대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기포장안전연구회를 발족했다. 앞으로 용기포장안전연구회는 해외용기포장 관리 제도, 최신 이행물질 분석방법, 신소재 개발동향 등 용기포장 전반에 대한 주제로 온라인 정보공유,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각계에서 수집, 연구된 전문적인 용기포장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국내 용기포장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기포장안전연구회를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 용기포장팀 이영자 팀장을 만나 연구회의 활동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국내 식품용 용기포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팀이 지난 6월 27일에 '용기포장안전연구회'를 식약청의 정식 연구모임으로 등록, 발족했다.

용기포장안전연구회 이영자 팀장은 "용기포장 위해분석 전반에 대한 조직 내외의 정보를 발굴하여 전 회원이 공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용기포장 위해분석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지식창출 및 업무 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용기포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족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용기포장안전연구회는 식약청(지방청 포함) 용기포장 관련 공무원, 연세대학교 등 학계, (사)한국식품기

기위생안전진흥협회, 한국바이닐환경협의회 등 협회,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주)오뚜기, (주)울촌화학, (주)대상 등의 업계 관계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국내외 용기포장 이행물질 검출 사례, 용기포장 관리제도, 용기포장 이행물질의 위해평가 방법, 신소재 재질 및 기능성 첨가제 개발동향 조사 및 이행물질 분석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에 따른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회의 활동으로 국내 식품포장산업은 다방면의 정보 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계나 업체에서는 새로운 식품포장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팀장은 “식약청이나 협회에서는 사전 위해 정보를 얻고 학계나 연구기관에서는 분석기술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국내식품포장산업계가 국민 보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분기별로 세미나 또는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유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식품 → 대분류(용기포장정보))에 『용기포장안전연구회 방』을 마련하고 회원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기포장안전 연구회는 『용기포장안전연구회 e-소식지』를 발간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용기포장안전연구회 e-소식지』 제1호(7.28일자)에서는 연구회발전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와 PVC 가소제 관련 정보 및 시험방법 등을

소개한 바 있다.

향후 이 팀장은 용기포장 위해분석 전반에 대한 조직 내외의 정보 발굴 및 대처를 위해 구축된 연구회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성원을 소비자단체, 타 정부부처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더 충당하여 정보 발굴의 효율성을 기하고, 새로운 시대 및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체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연구회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용기포장안전연구회를 활발히 이끌어 나갈 이 팀장은 “연구회가 잘 운영되어 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국내 식품용 용기포장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내 식품포장산업은 식품포장재를 생산·유통하거나 개발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는 포장재의 기능이나 코스트 등에 치중한 나머지 ‘용기포장 이행물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며 “업체의 경우 학계, 연구소 및 정부 등에 비해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정보가 빠르고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992년 국립보건원 식품첨가물과와 식약청 천연첨가물과에 근무한 이 팀장은 2002년 부산 식약청 시험분석실장, 서울식약청 시험분석실장을 거쳐 지난 해 식약청 용기포장팀장으로 발령, 현재 식품포장용기 안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ko]

이한열 기자